

# 화순군, 1회추경 7천894억 편성...“문화체육 강화 중점”

화순군이 당초 예산보다 1천282억원 증액한 7천89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4일 화순군에 따르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 7천89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천282억원(19.04%)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천185억원(20.7%)이 증가한 6천918억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77억원(8.8%)이 증가한 976

억원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등 747억원 및 국·도비 보조금 250억원, 전년도 잉여금 168억원 등 총 1천185억원 규모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화순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및 주변 정비 23억원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행사 운영 8억원 ▲화순농협 동부 지점 토지매입 7억원 등 101억원, 사회

본예산비 19.04% ↑ ...바이오·춘란 등 차세대 사업 발굴  
구복규 군수 “군민 모두 행복한 새로운 화순만들기 예산”

복지 분야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40억원 ▲공공근로사업 18억원 ▲청년주변 정비 23억원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행사 운영 8억원 ▲화순농협 동부 지점 토지매입 7억원 등 101억원, 사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조림지 풀베기 20억원 ▲잠정 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방수 및 도색공사 15억원 ▲떡국지구 배수개선사업 13억원 ▲농촌 돌봄 마을 조성 사업에 10억원 ▲농기계임대사업

소분소 신축 14억원 ▲난 관련 산업지원 5억원 등 총 37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87억원 ▲화순군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 12억원 등 206억원을 편성했다. 구복규 군수는 “이번 추경안은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춘란 산업 육성 등 화순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고

인돌 가을 축제 등 문화·체육 부분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사회복지예산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균형감 있게 배분해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화순을 만들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개최하는 제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화순=이병철 기자



고흥만 선셋가든 관광 명소화 사업 대상지인 고흡만 수변노출공원 일대 전경. <고흥군 제공>

## 고흥만 선셋가든 관광 명소화 사업 본격화

해안·담수호 전망대·카페 공간...내년 초 '첫 삽'

고흥군은 4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고흡만 선셋가든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선 사업은 총사업비 106억원 규모로 고흡만 일원 2만여㎡ 면적에 전망대와 카페,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달 중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올해 말까지 사업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공사는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인 내년 초로 예상된다. 사업 대상지인 고흡만 수변노출공원 일대는 공원지구로 인근에 대규모 숙박시설, 물놀이장, 캠핑장, 공원 등 다

양한 편의시설과 주차장이 있어 관광거점 공간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예정된 고흡지구 관광개발 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흡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고흡만 관광지구가 관광 천마시의 발판이 될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 여수시 국동,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 돌입

전기 설비·건축업·자원봉사자 등 15명 구성

여수시는 “최근 국동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올해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활동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국동 우리동네복지기동대’는 전기설비, 건축업, 자원봉사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로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긴급 수리, 주거환경정비 등 생활불편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국동주민센터에서 복지기동대 간담회를 개최, 전년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활동 계획 논의 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오후림 복지기동대장은 “이웃의 어려움은 우리가 해결한다”는 지역사회 인식 확산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총

촉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여복례 국동장은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의 헌신적인 봉사가 ‘안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국동’을 만들어가는 구심점이 된다”며 “올해에도 ‘복지 사각지대’제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담양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실시

담양군은 4일 “대전면에서 직원 대상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군은 최근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잘 활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

현재 대전면사무소에는 위급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돼 있다. 이승모 대전면장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숙지는 심장지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더불어 응급구조 활동과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서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응급 구조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팔상도’ 국보지정 예고

2003년 보물 지정 이후 21년만에 승격

순천시 “최근 문화재청이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팔상도’를 국보로 지정 예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보물로 지정된 지 약 21년 만에 이번 국보로 승격되는 것이다.

제작 연대와 의겸(義謙) 등 제작 화승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 전각에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를 일괄로 일시에 조성해 봉안한 가장 이

른 시기의 작품으로 확인되며, 팔상도만이 아니라 영산회상도까지 ‘석씨원류화사적’의 도상을 활용해 하나의 개념 속에 제작된 일괄 불화로서 완전함을 갖추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 영산회상도의 다양성과 팔상도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순천=정기기자



영산회상도. 팔상도 ‘비밀강생상’.

## ‘장흥 선학동 마을’ 유엔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 선정

소설 ‘선학동 나그네’ 배경...자연환경 조화 문학길 조성

장흥군 화진면의 선학동마을이 ‘제4회 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로 선정됐다. 4일 장흥군에 따르면 유엔관광청이 주관하는 최우수 관광마을을 지정하기 위해 현장 답사 및 컨설팅을 진행, 오는 4월 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9-10월 중 발표된다. 유엔관광청(UN Tourism, 구 유엔세

계관광기구 UNWTO)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개발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불균형 등 세계 공통 과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신안군과 화순군에 이어 장흥군이 3번째로 ‘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에 도전한다. 선학동 마을은 현대문학의 거장 이

청준 작가의 소설 ‘선학동 나그네’의 배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원작으로 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천년학’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으로 유명하고, ‘문학관광기행특구’ 지역답게 마을에는 문학길이 조성돼 있다. 2007년부터는 ‘금빛·은빛 가득한 선학동 마을’이라는 마을 공식 소품 사이트를 만들어 마을 소식과 발전 등 마을을 알리기 애나서고 있다. /장흥=노홍록 기자

## 광양, 365일 문 여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중마동 중마대형약국...연중무휴 자정까지

광양시는 4일 “중마동 중마대형약국을 공공심야약국(365일 자정 운영)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하는 데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문약사의 복지지도 등 효과적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 대상은 보건소 또는 약사회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을 조사하고 최종 추천을 마친 뒤, 도 승인을 거쳐 최대 1년간 운영되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해왔으나 지난해 7월 약국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되자 같은 해 12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를 제정, 약사회 간담회를 통해 심야약국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 현황은 의약품 판매·상담 실적 4천300건으로 20~40대 이용객이 가장 많았다. 주요 증상은 호흡기질환 및 해열·소염진통제와 관련 의약품 구입이 다수다. 김복덕 광양시보건소장은 “소아·임산부 등 의료 취약층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야간·휴일에도 전문약사의 복지지도로 안전하게 의약품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철 기자

## 장성군, 삼일절 맞이 독립유공자 가족 위문

고(故)유희영 애국지사 가정 방문

장성군은 4일 “최근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장성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삼일운동열사 의적비 앞에 집결한 참석자들은 식순에 따라 헌화와 분향, 묵념, 만세삼창을 한 뒤 춘향탈과 호남창의영수기삼일선생순국비 참배를 이어갔다. (사진) 군은 행사에 앞서 독립유공자 가정을 직접 위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성에는 현재 ▲고(故) 이상준 ▲이계열

▲백재호 ▲유희영 ▲박종협 ▲박광우 ▲류상순 애국지사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김한중 군수는 고(故)유희영 애국지사의 아들 유정규씨 자택을 방문

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다른 독립유공자 가정은 읍·면장들이 위문했다. 김한중 군수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선택한 선열과 유가족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보훈가족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